“방일(放逸)의 과실은, 도(道)와 어긋나 가르침의 다리를 끊으며 선심의 씨를 깨뜨리며 온갖 망념(妄念)을 이끌어 낸다. 악취(惡趣)에 떨어지는 일은 바로 방일에서 생긴다.”
‘제법집요경(諸法集要經)’에 담긴 방일함을 경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의 방일이라도 마음에 스며들면 악취에 떨어지게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는데 밤낮으로 지칠 줄 모르면 선근(善根)이 더욱 청정해져서 불로 순금을 벼려낸 것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과 정진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행복과 안락으로 이끄는 최상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불자들은 그러한 인연공덕을 실현함으로써 사바세계를 정토의 세상, 상생의 공동체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三毒)으로 인한 일체 고통과 일상에서 겪는 역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극복해 냈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원력은 금강과도 같은 신심(信心)을 바탕으로 합니다. 굳건한 신심을 통한 수행체험과 이에 따른 가피는 불자들의 신심이 후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지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이 주관하는 제2회 신행수기 공모전이 4월 한 달 동안 열립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의 봉축 일환으로 열리는 신행수기 공모는 경전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실천한 불자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는 나눔의 장이자 회향의 장입니다. 극한의 고통과 난관 속에서, 또는 잔잔한 일상생활 속에서 불자들이 겪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은 아직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 못한 이에게는 길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며 신심(信心)이 두텁지 않은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지남(指南)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일체의 선근을 증장시킬 수 있으며 의혹의 그물을 끊고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나게 하여 열반이라는 최상의 길을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불자님들이 지극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사경하듯이 써서 보내주신 400여 편의 신행수기는 이 시대의 귀의처이자 발심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순례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쌓아올린 신심과 이에 따른 체험과 기피의 경험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참선, 보살행을 통해 쌓아올린 신행수기는 이 시대의 대장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